

안녕하세요
경기도 합격생입니다.

1차 점수 : 71.67 / 2차 점수 : 93.13

◆ 임용입문 계기 & 임용 경력..(?)

저는 어린이집과 직장 보육시설에서 5년차 근무 중, 아는 선배에게 유치원 임용고시가 추가시험이 날 만큼 많이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시가 나던 2013년 여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해 서울을 지원하여 88점을 받아 (서울 컷 89점) 바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재수시절에는 올인하여 공부하였고, 경기를 지원하여 1차 합격을 하고 최종에서 0,06점 차로 낙방을 하면서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가정 형편도 있고, 임용 고시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간간히 했지만 임용고시에 대한 마음도 많이 비워진 상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016년이 되자 가정형편도 많이 안정화 되었고,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재 결심하였고, 민정선 교수님의 패키지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며 일+공부하였습니다.

◆ 임용고시를 하면서 공부한 것

- 1. 논술
- 2. 개론
- 3. 해설 지침서 & 각론
- 4. 장학자료
- 5. 기출자료
- 6. 법 : 유아교육법(령/규칙), 아동복지법(령/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7. 고시문 및 세부내용

1. 논술 :

① 장학자료를 추천합니다!

장학자료 처음을 보면 이 장학자료를 만들게 된 이유와 필요성과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장학 자료를 읽다가 좋은 문장이나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문장이 있다면 적어두었다가 논술에서 사용하였습니다.

② 스터디 운영

저는 스터디에 참여하여 세 명의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교수님 2회차 모고에 대해 제가 받은 피드백입니다.

저는 논술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문, 다른 선생님들의 글을 첨삭해주면서 매끄럽게 글을 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론	원문	최근 인간 소외현상,물질 만능주의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본론에서는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유아기에 효과적인 인성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	첨삭	서론 좋아움!!
본론	원문	(중략) 유아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대화에서 드러나는 지도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지도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는 미끄럼틀을 탈때 줄을 서지 않는 유아들에게 질서라는 덕목을 가

		<p>르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도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이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유아들과 약속 및 규칙을 정하고 실천해보도록 한다. 둘째 교육방법과 내용이 유아의 흥미를 끌기 어렵다. 이는 인성교육을 할 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유아의 행동에 변화도 없고 유아의 흥미를 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한 여러 상황과 영상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 덕목을 효과적인 활동을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다. 이는 색종이등 낭비가 심한 유아에게 교사가 통제와 상반행동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에게 지도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가정에서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지도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가정연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p> <p>(중략)</p>
본론	첨삭	<p>문제가 있다, 끌기 어렵다, 부족한 점이다. 어미를 하나로 통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p> <p>효과적인 활동을→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p> <p>색종이등, 상반행동 강화 등→색종이 낭비가 ~ 상반행동 강화 등 ~ 중복되는 서술 방법인 듯 해서 다른 표현으로 바꿔 보았어요</p>
결론	원문	<p>바른 인성은 앞으로 유아가 나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아가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p>
결론	첨삭	<p>결론 짧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p>

③ 틀 만들기

논술주제는 대체로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부모, 교사, 평가, 누리과정, 인성, 창의성 등등...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서론과 결론을 만들어 두시면 1시간이라는 짧은 시험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론 + 각론 + 해설지침서 + 장학자료

① 줄글

저는 줄글을 읽어서 맥락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초수생들에게는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줄글을 계속 읽고 암기하게 되면 답안 작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② 단권화

저는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 뜻을 품고 만들다보면 지레 지쳐서 결국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지도도를 비롯하여 수험서 중에서 요약 및 좋은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해설서 지침서를 단면 프린트 하여서 해설지침서와 관련된 이론과 내용들을 적어서 해설지침서를 보면서 관련 내용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장학자료

저는 장학자료 매니아(?) 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제 근거가 분명히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서 장학자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쌤이 주시는 자료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3. 기출자료

저는 기출자료를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개론, 각론서에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상사는 제외) 대신 출제 경향과 답안 작성을 위해서 참고하였습니다. 특히나 2015, 2016년도부터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시험상황에서, 또한 끝나서도 답을 무엇을 써야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을 보면서 시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할까? 답안 작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

였습니다. 민쌤의 책에서 있는 답안작성내용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4. 법

저는 기본법만 잘 보자는 생각으로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았고 나머지 법령을... 나와도 버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인하던 시절에는 국가법령지원센터 -> 유아교육 -> 법령, 자치법규(본문내용) 까지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5. 고시문

저는 고시문을 써서 외울 시간이 우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술 암기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인출 또한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 ~해본다 등과 같이 헛갈리는 부분만 따로 해서 기억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아이들 낮잠시간 1시간을 사용하여 고시문을 암기했습니다. 구술로 암기한 것을 폰으로 녹음한 다음에 들으면서 고시문을 체크했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한 영역씩 쓰기도 했습니다

6. 계획세우기

저는 우선 일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았고, 제가 확보해야지 했던 공부시간은 지켜서 공부하였고 일하는 중간에는 가급적 머리를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이야기 하면서 공부하다 받은 스트레스도 날려버렸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입니다.

MON	TUE	WED	THU	FRI	SAT	SUN
am7:00-8:00 논술	am7:00-8:00 논술 피드백	am7:00-8:00 논술	am7:00-8:00 논술 피드백		직강	복습
일	일	일	일	일		CHURCH
낮잠 : 고시문 총신	낮잠 : 고시문 의사	낮잠 : 고시문 예자	낮잠 : 고시문 총신	낮잠 : 고시문 의사	점심: 고시문 예자	
일	일	일	일	일	직강	
7:00~9:00 잠	7:00~9:00 잠	7:00~9:00 잠	7:00~9:00 잠	7:00~9:00 잠		장학자료 및 읽기자료
9:00 - 12:00 개론 법	9:00 - 12:00 각론 + 해침 법	9:00 - 12:00 개론 법	9:00 - 12:00 각론 + 해침 법	9:00 - 12:00 개론 법	9:00 - 12:00 각론 + 해침 법	
12:00-12:30 전화스터디	12:00-12:30 전화스터디	12:00-12:30 전화스터디	12:00-12:30 전화스터디	12:00-12:30 전화스터디	12:00-12:30 전화스터디	
웹지도 암기	웹지도 암기	웹지도 암기	웹지도 암기	웹지도 암기	웹지도 암기	

7. 스터디

제가 도움받은 스터디는 논술 스터디와 구술 스터디였습니다.
 구술 스터디는 어느정도 내용이 이해된 이 후인 7~9월 1주일에 1회~2회 만나서 준비한 범위를 외우고 암기 하였습니다. (강사는 모두 달랐지만, 학습의 범위는 동일한 편) 그리고 10월부터는 같이 논술 스터디를 하던 선생님하고 전화로 구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구술 스터디는 처음에는 설명을 듣고 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책 한번을 보고난 후, 단어를 말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스터디를 참여했지만 제가 도움 받은 스터디는 이 두 가지 스터디였습니다. 스터디는 공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지만 가끔은 때로는 족쇄처럼 자신의 갑갑한 수

험생활을 더 삭막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모두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하거나 운영하실때 보다 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스터디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 강사 및 수업 선택

저는 민정선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는 일하랴 공부하랴 늘 정신없던 저에게 토요일 직장시간은 한주간의 공부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전 주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민 교수님은 늘 정확한 이론과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헛갈리는 개념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어 주시는 프린트는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볼 만큼 에너지와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던 저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교수님이 주시는 그 만큼만 보자"라는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최대한 따라갔습니다. 특히나 모의고사 시기가 오면 수험생들은 초조한 마음에 여러 강사님들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러기 보다는 문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데 집중하였고 아는 내용을 꼭 꼭 씹어보자는 느낌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점이 일병행하는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올인하던 시기에는 여러 강사님들의 자료를 살펴보고,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도움이 안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많은 강사님들의 자료를 살펴보다보면 공부량이 많아져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다보면 괜히 불안해지는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며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찾고 훑어보다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과감히 버릴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9. 초수생 + 재수생 + 슬럼프

초수생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초수부터 지금까지 성적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컷을 기준으로) 그리고 주변에서 초수생들도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초수 때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수험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늘어지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수 때에는 모든 것이 새롭기만하고 다 외워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욕적으로 외우고 공부한 반면, 공부가 길어지면서 이미 한번 본 내용이라는 생각에 아는 것은 슬렁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는 내용도 틀리고 실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재수생 이상 선생님들께서는 늘어지지 마시고, 아는 문제도 꼼꼼히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문제도 다시보자. 여러분이 무심코 넘기는 그 페이지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ioi

저는 일병행을 했기 때문에 슬럼프라는 것이 있었겠지만 심하게 겪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공부하기 싫을 때 유튜브에서 행정법 전효진의 쓴소리, 수능강사 이지영의 공부법 등을 보면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10. 2차

저는 2차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마지막 수험생활을 열심히 하고 마무리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워낙 말을 못하는 편이라 심층면접, 집단토의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0.06점 차이로 낙방을 맛보았던 터라 2차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 뿐 아니라 매일 5문제 정도씩 답을 생각하고, 혼자 중얼중얼 거려서 비문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강의 이후에 학원에서 보내주시는 저의 심층면접 영상을 반복해보면서 답변과 태도를 수정했습니다. 맨처음에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별로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태도, 표정, 눈감박임까지... 너무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문제와 직면하면서 반복해보면서 수정해나갔습니다. 또한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내보고 녹음하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층면접에서는 부담을 줄여갔습니다.

수업은 만능 틀을 만들어서 준비했었습니다. 게임, 신체표현, 등등...

이번 2차 실연에서 저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민쌤의 2번째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 수월하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간간히 실수들이 있어서 발표날 까지 이불킥은 수없이 했어요...

◆ 마무리

저는 1차도 거의 컷 (+1.34)로 붙은 데에다 2차도 많이 잘본 편은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장수생 선생님들, 일병행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다보니 장수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일병행도 하게 되었네요.^^;;

저는 먼저 선택과 집중을 권해드릴게요.. 저처럼 우왕좌왕하다가 공부도, 일도, 즐거운 삶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